

June 2012

天地人朴父史 獨利解放完民時代

Tongil Group Newsletter

Newsletter

Tongil Group <http://www.tongilgroup.org/eng> Contact: info@tongilgroup.com Copyright© Tongil Group All Rights Reserved

True Parents' Recent Activities

Dedication of True Father's Autobiography Comic Book (English and Japanese Versions) at Cheon Jeong Gung

- 3.21 (Leap Month) by the Heavenly Calendar (May 11)





True Parents visit Yeosu Expo 2012

- 3.20 (Leap Month) by the Heavenly Calendar (May 10)





“May 16th, Today's Hoondokhwe: I did not begin to walk down this path after hearing the words of someone I met on the street by chance. I did not begin following this path after my heart was moved by some pastor. The starting point of it all was ‘God’. “Where is God?” “Then what is His wish?” “Heavenly Father, do you need me?” I asked Him over and over again, and it was not until I had asked all my questions that I began to walk down this path. Aju.”

“May 17th, Today's Hoondokhwe: Everyone, we talk about living a life of faith, but do you indeed live a life of faith? When you do so, the realm of experience is brought to the surface. And you cannot imagine how wonderful and thankful it is for you to ‘live your lives connected to the substantial realm that is not just inherent but can be seen on the surface’. This is the level we can reach. Aju.”



**Rev. In Jin Moon gave a Lecture
at the Mother's Day celebration in America**

- May 13th, 2012 (Sunday) American Mother's Day
Arlington Ballroom, Crystal Gateway Marriott in Crystal City, Virginia



Tongil Group Invitational Ministry Department Staff Meeting of Incheon and Northern Gyeonggi District

On May 15 at 3:00 pm, the ‘Tongil Group Invitational Ministry Department Staff Meeting of Incheon and Northern Gyeonggi District’ was hosted in the 13th floor meeting room of the Dowon Building, attended by more than 50 Ministry Department leaders and Ladies Aid leaders. The meeting was held in the following order: 1) Report on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Foundation; 2) Report on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Church; 3) Report on the present situation of Cheon Bok Gung; 4) Report on the ILC and the Inter-religious Peace Blessing Festival held in the Philippines (Mission Department); 5) Report on the media coverage of the Foundation (Foundation External Affairs Department); and 6) Speech by Chairman Kook Jin Moon.





Nepal Church National Leader (Member of Parliament) sworn in as Cabinet Minister

We have wonderful news from Nepal. The Hon. Ek Nath Dhakal (National Leader of Nepal Church), who is the Church National Leader of Nepal as well as the Chairman of the Universal Peace Federation in Nepal and a member of parliament under the Family Party, was sworn in on May 16 as a Cabinet Minister. On this day, 25 Cabinet Ministers were appointed transcending political parties, and the ceremony of appointment was performed with utmost solemnity at the Presidential Palace with the current President (Dr. Ram Baran Yadav) and Prime Minister (Dr. Baburam Bhattarai) in attendance. After the monarchy in Nepal came to an end, the nation has prepared for more than three years centering on the transitional government to enact a new constitution based on democracy, and the new Constitution will be proclaimed on May 28th, 2012.

Immediately after being sworn in as a Cabinet Minister at the Presidential Palace, the Hon. Ek Nath Dhakal came back to the Peace Embassy, changed into traditional Nepalese dress and returned joy and glory to True Parents in the 4th floor True Parents Prayer Room.



Media Coverage

* Yeosu Expo Opening Ceremony

- **Yonhap News**: Chairman Kook Jin Moon attended the opening ceremony of Yeosu Expo together with VIPs from various circles including President Lee Myung-bak and First Lady Kim Yoon-ok. The photograph shows him applauding the celebratory performance.



* Korean Creative Ballet, 'Shim Chung – The Blind Man's Daughter' performed in Russia (5/17)

- **KBS NEWS** <http://news.kbs.co.kr/world/2012/05/17/2476463.html>



"Korean Ballet has highly praised"



"Hoon Sook Moon, General Director of Universal Ballet"



"Korean unique movement is very impressive and beautiful."

"Universal Ballet has performed at the three most prominent theaters in Russia"



15일 밤(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스타니슬라프스키 극장에서 열린 발레 '심청' 3막 중 심청(양지은)이 연꽃에서 나오는 장면. 아래 사진은 공연이 끝나자 1060석을 가득 채운 러시아 관객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모습. 유니버설발레단 제공

(모스크바 슬라프스키 극장)

토종 창작발레 심청, 발레 메카서 기립박수 받다

유니버설 발레단, 러 3대극장 공연

박수는 길었고, 그 소리는 컸다. '발레의 메카' 모스크바가 요녀 심청에 매혹됐다. 15일 밤(현지시간) 발레 강국 러시아 모스크바의 스타니슬라프스키 극장에서 공연된 한국 유니버설발레단(UBC·단장 문훈숙)의 창작 발레 '심청'은 떠나갈 듯한 갈채와 환호 속에 끝났다. 한국의 발레단이, 그것도 창작 발레로 모스크바에 입성한 것은 한국 발레 역사상 처음 있는 일. '발레 한류'가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1941년 지어진 스타니슬라프스키 극장(1060석)은 볼쇼이 극장, 마린스키 극장과 함께 러시아 3대 극장의 하나로 꼽히는 곳. 현재 모스크바(市) 소속으로 스타니슬라프스키 오페라단과 발레단, 오케스트라가 상주하는 유서깊은 극장이다. 14·15일 열린 이번 공연은 UBC의 '심청' 무대 영

상을 본 극장의 초창으로 이루어졌으며, 3월 초에 이미 전석이 매진됐다. '심청'은 1989년 초연 후 26년의 시간 동안 다듬어지면서 UBC의 대표 브랜드가 된 작품. 지난해부터 월드 투어 등으로 대만, 싱가포르, 미국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밴쿠버, 오만을 거쳐 모스크바에 상륙했고 9월 28~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관객을 만난다.

무대는 시작부터 압도적이다. '孝(효)'자 아래 분홍빛 연꽃이 큼직하게 그려진 딱이 오르자 고전 심청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버지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는 심청의 줄거리가 에드리아나 텔라스의 안무를 통해 서양 발레로 거듭났다. 1막 폭풍우 몰아치는 인당수 선상(船上)에서 선원들이 펼치는 남성 군무(群舞)는 선 굵은 동작이 역동적이었다. 처음으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출렁이는 바다에 심청이 뛰어드는 장면은 스펙타클렀고, 바다에 빠진 심청의 모습



동양적 스토리, 서정적 연기력 까다로운 관객들 브라운도 연발 창작발레, 모스크바 첫 입성

을 영상으로 처리한 것도 신선했다. 바닷속 용궁이 펼쳐진 2막에선 부드럽고 우아한 여성 무희들이 물고기처럼 하늘하늘 움직였다. 3막의 배경은 궁궐. 딸을 낳은 남성 무용수들의 움직임에도 격적

반응이 뜨거웠다. 한국의 전통 탈춤을 발레에 접목한 탁월한 시도였다. 심청 황해민(14일)은 서정적이고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였고, 양지은(15일)은 특히 3막 궁궐 장면에서 안정적인 몸짓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러시아는 자타가 공인하는 발레 강국.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 등 유명한 레퍼토리는 모두 러시아 작품이다. 특히 '볼쇼이발레단'이 자리 잡은 모스크바 관객은 '발레 평론가'로 불려도 좋을 만큼 수준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공연 직후 만난 러시아 관객들은 하나같이 "어메이징!" "뷰티풀!"이라고 외치면서 엄지손가락을 차켜세웠다. 류보티 율갈로바(50)씨는 "한국 발레가 훌륭하다. 예기는 워낙 좋았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감동이 백배오른다"고 했고, 옥시나 슈세로바(33)씨는 "한국의 효(孝) 사상은 한없이 가벼워지는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 같다"며 "무대 장면 하나하나가 이야기와 잘 어울렸다"고 감탄했다. 극장장 블라디미르 우린(Vladimir Urin)은 "동양의 고전 스토리가 서양의 발레와 훌륭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놀랍고 독창적"이라며 "UBC를 향후 3년 안에 다시 모스크바에 초청하고 싶다"고 했다.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다. 공연장 바닥에 깔린 고무판이 유달리 미끄러워 초반 일부 무용수들이 미끄러지면서 움직임이 경직됐고, 첫날 공연 1막에선 무대가 지나치게 어두웠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를 보완한 둘째날 공연은 관객 몰입도가 훨씬 높았고 커튼콜 기립박수까지 이어졌다. 문훈숙 단장은 "한국의 발레단이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은 기법기를 바탕으로 창작 발레를 만들어 모스크바에 진출한 획기적인 공연이었다"며 "앞으로도 발레 강국 한국의 이미지를 계속 전파하겠다"고 했다. 모스크바=허윤희 기자 ohyunh@chosun.com

* The Segye Times: Prof. Byeong Gi Hwang, Mrs. Hoon Sook Moon and the Geum Ho Foundation were chosen as the recipients of the ISPA Award (5/16).

황병기·문훈숙, 금호재단 ISPA 어워드 수상자 선정

서울문화재단과 국제공연예술협회(ISPA)는 다음달 11일 개막하는 ISPA 서울총회 어워드 수상자로 황병기(76) 이화여대 명예교수, 문훈숙(49) 유니버설발레단장, 금호아시아문화재단(이사장 박삼구)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황 교수는 한국 전통악기의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해외에 알린 공로를, 문 단장은



황병기 교수



문훈숙 단장

28년간 발레단을 이끌며 공연예술 국제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각각 인정받았다. 금호재단은 클래식음악 영재를 발굴하고 후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Julia Hoon Sook Moon - 2012 International Citation of Merit Recipient

May 22, 2012

Julia H. Moon, will be the recipient of the 2012 International Citation of Merit at the Seoul 2012 ISPA Congress, Cultural Shifts www.ispa.org/congresses/seoul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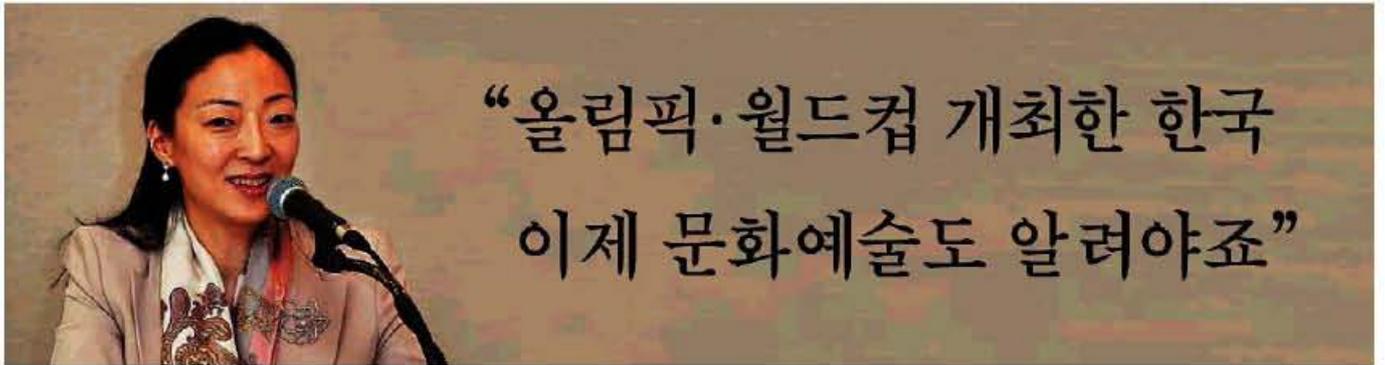
Julia H. Moon

Julia H. Moon is the General Director of Universal Ballet. Born in Washington D.C., Julia H. Moon traveled to receive ballet instruction in Korea at the age of 10. While studying at Sun Hwa Arts School in Seoul, she subsequently took lessons at the Royal Ballet in London and L'Academie de Dance Classique de Princess Grace of Monaco. In December 1989, Julia H. Moon became the first Asian to be invited by the Kirov Ballet, where made her debut in a performance of Giselle and also appeared in Don Quixote and Swan Lake. She also has been performing overseas with the Washington Ballet.

A Founding member of Universal Ballet in 1984 and General Director of the company since 1996, Julia H. Moon retired from the stage in 2001 and became active in the management. Universal Ballet is Korea's first professional ballet company in the private sector and under her direction, the company continues to be the leading force of ballet in Korea. She has focused on broadening the audience and engaging social service projects, the first Korean ballet company to provide real time subtitles in Korea during a performance. Julia H. Moon has made great contribution to popularizing ballet among Koreans and to elevating Korean ballet to a global level. For the first time an original Korean ballet production has performed in the Middle East, Universal Ballet performed at Oman Opera House on November 2011.

In 2010, Julia H. Moon has received the Order of Cultural Merit, Hwagwan Class, from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Korea for making exceptional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arts in Korea and has received several awards such Korea's Arts and Culture Awards in 1999.

* The Segye Times: Korea has hosted the Olympics and the World Cup; we should now show the world our culture and arts’ (5/1)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장은 30일 기자회견에서 "ISPA 서울총회가 한류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문화재단 제1

국제공연예술협 내달 서울 총회 문훈숙 추진위원 강한 기대 표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문훈숙(49) 유니버설발레단장이 6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공연예술협회(ISPA) 제26회 총회에 강한 기대를 나타냈다. ISPA는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단체 경영인들로 구성된 NGO(비정부기구)다. 서울 총회 추진위원을 맡고 있는 문 단장은 30일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ISPA 활동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2000년대부터 ISPA 회원으로 활동하며 이 행사가 한국에서 꼭 열리길 기원했어요. 우리나라가 올림픽, 월드컵,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을 개최하며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이제 정치, 경제, 스포츠 외에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 단장이 ISPA 활동에 관심을 가진 건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니버설발레단의 미국 뉴욕 무대 데뷔를 앞두고 해외홍보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했던 그는 ISPA에 눈을 돌렸다. 이후 무용계를 은퇴하고 예술단체 경영인으로 변신하며 자연스럽게 ISPA와 인연을 맺었다.

“문화예술 분야의 국제교류는 3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해외 공연예술의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둘째는 좋은 글로벌 파트너를 찾는 일이죠. 세번째가 한국 문화예술을 다른 나라에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ISPA 총회의 서울 유치는 굉장히 의미가 큼니다.”

6월11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ISPA 서울총회의 주제는 ‘문화변동’(Cultural Shift), ‘K-팝’ 등 한류 열풍에 힘입어 서울이 국제공연예술계의 새로운 ‘허브’로 떠올랐다는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다. 3개국 300여명의 문화계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기간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등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토론회가 펼쳐진다. 김태훈 기자

* The Segye Times (Japan): Introduction of Yeosu Expo and The Ocean Resort – “Focusing on the co-existence of the ocean and humankind”.

The article introduced the Yeosu Expo, explaining that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accommodations in Yeosu, including The Ocean Hotel, made it easier for people to take part in the Yeosu Expo.

平成24年(2012年)5月17日(木曜日) The Sekai Nippo



日本館には開幕初日から長蛇の列ができた(12日)





海を一望できる「ゼオ・オーシャンリゾート」ホテル(左)やコンドミニアム(右)のほか6000人を収容できる「ウォーターパーク」なども備えている「ゼオ・オーシャンリゾート」関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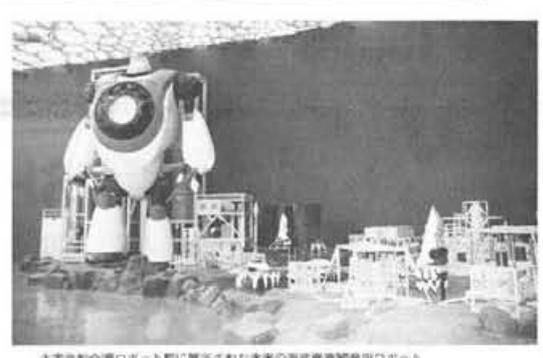
海と人の共生などに焦点

麗水万博 800万人動員へ

展

「日本の海、未来へ」をテーマに、海洋資源の持続可能な利用や、海洋環境の保護などをテーマにした展示が行われる。また、海洋文化の発信や、国際交流の促進も目指し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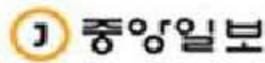
写真の真の海



大宇造船会館ロボット館に展示された未来の海産資源開発用ロボット

* The Choongang Times, Yahoo News, JTBC, News1: Korea-Japan Blessed Couple, Mrs. Tomiko Asano, was awarded the Presidential Award for Filial Conduct

Mrs. Tomiko Asano, a 360,000 Korea-Japan Blessed Couple belonging to Buan Church in Northern Jeolla Province, was awarded the Presidential Award for Filial Conduct on the 40th Parents' Day when it became known that she is married to a disabled Korean man and has faithfully waited on her mother-in-law, who is suffering from paralysis.



중풍 시어머니·장애인 남편 수발하는 일본인 며느리

부안 사는 아사노, 대통령상
어버이날 168명 훈장·표창



시어머니(임영례·80)를 모시고 산다. 특히 입씨가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우측 마비가 온 뒤

사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너무 고맙다"며 "한국에서 더 열심히 살라는 뜻으로 이 상을 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8일 전북 부안군 부안을 선은마을 마을회관에는 '김영천-아사노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이 마을 주민 김영천(49·지적장애 3급)씨의 일본인 부인 아사노 도미코(49·사진)가 제40회 어버이날 표창을 받은 것을 축하하는 현수막이다. 아사노는 한국의 장애인 남편과 결혼해 중풍을 앓는 시어머니를 지극 정성으로 모신 사실이 알려져 효행상을 받았다.

아사노는 시어머니를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 입히고 병원에 동행한다. 왼손으로 부자연스럽게 식사하는 시어머니를 돕는다. 남편 김씨는 97년 일하다 목을 크게 다쳐 근로능력이 없다.

그는 이날 어버이날 수상자들과 함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아사노를 옆두에 둔 듯 "일본에서 시집오신 분 계시죠. 아주 가정이 어려운데도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다.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모여계시다. 한 분 한 분이 보통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사노는 1963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그 지역 야마모토고교와 카로우사이 전문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그러다 95년 남편 김씨와 결혼해 한국에 뿌리를 내렸다. 18년째

아사노는 2년 전부터 읍사무소에 청소 일을 나간다. 이 돈과 정부 지원금으로 1남2녀 학비와 시어머니 병원비를 낸다. 김씨는 "아내가 절대 짜증을 안 낸다. 식구들한테 너무 잘한다"고 자랑했다.

이날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최순덕(51·강원도 철원군)씨 등 168명이 훈장·포장·표창을 받았다.

아사노는 틈틈이 마을 경로당과 동네 독거노인을 찾아 봉사활동을 한다. 아사노는 "저보다 더 열심히

신성식 선임기자, 고정애 기자
ssshin@joongang.co.kr

※ Please visit the Tongil Group homepage at www.tongilgroup.org/eng. Thank you.

Facebook: Tongil Foundation

